

## 독수리, 호랑이 굴서 축하 파티



### KIA, 괴물투수 류현진 투구에 눌러 2-7 패 한화, 3점포 2방으로 김인식 감독 회갑 축포

“독수리 기법일은 호랑이 굴에서...”  
한화는 2006년 8월 29일 광주 KIA전서 꿈의 기록을 세웠다.  
당시 프로 18년차인 송진우가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 한국프로야구 사상 첫 개인 통산 200승 고지에 오른 것. 199승을 쌓은 뒤 ‘4전5기’만에 세운 기록인만큼 한화의 기쁨도 두배가 됐다.  
한화는 경기 전 KIA측의 양해를 얻어 광주구장에 마련한 개막축포를 쏘아올리며 자축 파티를 열었다.  
그 후 꼭 8개월만인 2007년 4월 29일, KIA와 한화의 경기가 열린 광주구장 전광판에는 ‘한화 김인식 감독의 회갑을 축하한다’는 축하 메시지가 새겨졌다.  
이날은 KIA ‘특급 마무리’ 한기주의 20번째 생일이기도 했다. 경기장을 찾은 KIA팬

들은 전광판에 김 감독에 이어 한기주의 생일 축하 메시지가 뜨자, ‘생일축하곡’을 합창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화는 이날 8개월 전 광주구장 외야에 설치했던 축포 대신 ‘3점포 두 방’을 광주 하늘에 수놓으며 회갑 축하쇼를 펼쳤다.  
KIA는 29일 광주구장에서 계속된 2007 삼성 PAVV 프로야구 한화전에서 1회와 6회 한화에 3점포 2방을 허용하며 2-7로 대패했다.  
KIA 선발 ‘새내기’ 양현종은 1회 1사 1, 2루에서 한화 4번타자 김태균에게 좌측 담장을 넘기는 장외 3점 홈런(비거리 130m)을 얻어맞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손영민에 이어 3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KIA 진민호도 6회 무사 2, 3루서 상대 한상훈에게 우월 슬라이더를 내주고 무너졌다.

KIA타선은 상대 선발 류현진을 상대로 4회 ‘웅병’ 서튼의 우월 솔로포(비거리 115m·시즌 2호)로 공격의 포문을 연 뒤 6회 2사 후 장성호와 홍세암의 연속 2루타로 1점을 따라 붙는 데 그쳤다.  
한화 ‘괴물 선발’ 류현진은 8이닝 6피안타, 5탈삼진, 2실점으로 시즌 3승째(1패)를 챙겼고, KIA 양현종은 시즌 2패째를 떠안았다.  
한편 KIA는 지난 28일 광주 홈경기에서 솔로포 3방으로 분전한 한화를 5-3으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KIA는 3-3이던 5회 이재주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역전에 성공한 뒤 6회 무사 1루에서 김상훈의 중월 2루타, 이용규의 중전 안타로 2점을 뽑아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장민제 호투...광주일고 8강행

광주제일고가 제41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에 진출했다.  
광주제일고는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부산고와의 16강전에서 선발 장민제의 8이닝 2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3-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8강에 오른 광주제일고는 30

일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덕수고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광주제일고는 0-0이던 3회 선두타자 허경민의 우전안타와 서건창의 보내기 버트로 1사 2루를 만든 뒤 이철우의 좌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렸다.  
7회에도 1사 후 허경민의 우익수 옆 파울라인을 타고 흐르는 행운의 2루타와 서건창

### 대통령배 고교야구 부산고에 3-0 완승

의 우익수 앞 적시타로 1점을 보낸 광주제일고는 마지막 공격인 9회초 1사 만루에서 조성진의 유격수 팽볼 때 승리에 췌기를 박는 1점을 추가했다.  
한편 덕수고는 이날 장종고와 연장 10회 접전끝에 5-4로 승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9일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린 '개장 2주년 기념 철쭉제 및 제3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에 앞서 참가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함평다이내스티CC 회원의 날 성료

### 최봉남씨 2언더파 우승

4개월 양산디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는 29일 '개장 2주년 철쭉제 및 제3회 회원의 날 친선골프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8명 54팀이 출전해 신페리오 방식으로 기량을 겨룬 최봉남(59)

씨가 2언더파 70타를 기록해 우승했고, 손현자(여·62)씨가 1언더파 71타를 쳐 준우승을 차지했다.  
조정곤(47)씨는 이븐파 72타를 기록해 메달리스트 상을 수상했으며 최규상(68)씨는 15번(파3)홀에서 홀컵 1.15m 가까이 공을 붙여 니어리스트 상을 수상했다. 김동길(44)씨는 18번(파4)홀에서

278m를 때려 롱기스트상을, 정홍술(59)씨는 매너상, 정행용(64)씨는 베스트드레서상, 양영숙(여·58)씨는 여성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지난 26~28일까지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린 '제2회 클럽챔피언대회'에서는 정성훈(45)씨가 평균 77타를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으며 임성욱(50)씨가 평균 79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 박철(49)회원은 한국골프장 경영협회 선정 우수곳매너 회원으로 뽑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민나온 12언더 공동 4위...선두와 1타차

### LPGA 코로나 챔피언십 3R

새내기 민나온(19)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로나 챔피언십 우승을 향해 다시 힘을 냈다.  
민나온은 29일(이하 한국시간) 멕시코 모렐리아의 트레스 마리야스 레시덴셜 골프장(파73·6천600야드)에서 열린 3라운드에서 6언더파 67타를 때려 내 중간 합계 12언더파 207타로 팻 허스트(미국)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대회 첫날 짝꿍 2위에 오른 뒤 다음 날 공동 8위로 밀려 났던 민나온은 다시 불꽃타를 휘두르며 공동 선두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실비아 카바렐리(이탈리아), 홀리에타 그라나다(파라과이·이상 13언더파 206타)에 1타차로 따라 붙었다.

전반에 버디 3개로 3타를 줄인 민나온은 후반 10번홀에서 16번홀까지 버디 4개를 추가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탔다.  
17번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범해 위축될 만도 했지만 민나온은 18번홀(파5)에서 다시 버디를 잡아내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공동 선두로 뛰어 오른 작년 대회 챔피언이자 세계랭킹 1위 오초아의 기세도 심상치 않았다. 공동 16위에서 출발한 오초아는 보기는 1개로 막고 이글 1개, 버디 8개를 쏟아내며 9언더파 64타를 쳤다.  
전날 공동 선두였던 안젤라 박(19)은 이번파에 그쳐 최혜정(23·카스코), 이정연(28)과 함께 중간합계 9언더파 210타로 6위 그룹을 형성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앤서니 김 공동 68위 PGA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3R

상승 곡선을 그렸던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EDS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앤서니 김은 29일(이하 한국시간) 텍사스주 어빙의 포시즈너TPC(파70·7천22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경기에서 버디는 3개를 잡는데 그치고 보기 6개, 더블보기 2개를 저질러 7오버파 77타라는 최악의 스코어를 내고 말았다. 이로써 중간합계 3오버파 213타를 친 앤서니 김은 공동 7위까지 올라갔던 순위가 공동 68위로 떨어져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은 꿈은 멀어지고 말았다.  
또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도 버디 2개에 보기 7개, 더블보기 2개로 9오버파 79타를 쳐 중간합계 6오버파 216타로 하위권에 떨어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슈퍼 루키' 김경태 프로 데뷔전 우승



'슈퍼 루키' 김경태(21·연세대·사진)가 한국프로골프(KPGA) 사상 처음으로 프로 데뷔전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김경태는 29일 제주 제피로스골프장(파72·6천438m)에서 열린 2007 투어 개막전인 토마토저축은행오픈 마지막날 1오버파 73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언더파 287타로 통산 15승의 '관록파' 최광수(47·동아제약)를 1타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프로로 전향한 뒤 데뷔전에서 우승컵을 안은 사례는 KPGA 사상 김경태가 처음이다.

## 최홍만, KO로 부활

### 말론에 2회 TKO 승 K-1 월드그랑프리 변외경기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7·218cm·사진)이 한 달여 만에 치른 재기전에서 2회 TKO 승을 거뒀다.  
최홍만은 29일 미국 하와이 닐 블레이즈 델 아레나에서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2007' 변외 경기인 슈퍼파이트에서 마이크 말론(35·미국)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끝에 2회 종료 1분9초를 남기고 TKO로 이겼다.  
이로써 최홍만은 지난 달 4일 일본에서 열린 K-1에서 마이티 모(34·미국)에게 생애 처음으로 KO로 패했던 수모를 털어냈다.  
또 6월2일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미국 프로레슬링 스타 출신인 브룩



레스너(30·미국)와 '빅 매치'를 앞두고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 지난 해 12월 바비 오로건(34·나이지리아)을 1회 TKO로 꺾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승리를 거둔 최홍만의 종합 격투기 통산 전적은 11승(3KO·4TKO) 3패가 됐다. 앞선 경기에서 노래를 부르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최홍만은 이날은 퍼포먼스를 펼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링에 올랐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최홍만은 초반부터 자신보다 키가 35cm나 작은 말론을 적극적으로 공격, 네차례 다운을 빼앗으며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김자인 암벽등반 여자부 우승  
톱클라이머 김자인(20·고려대·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 선수가 29일 광주 삼무시민공원 인공암장에서 오버행(Overhang·경사도가 90도 이상인 암벽)을 올라선 뒤 다음 홀드를 붙잡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다. 최근 각종 국제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서 우승을 휩쓸고 있는 김 선수는 이날 (사)광주주시산악연맹(회장 최경주)이 개최한 '제19회 광주광역시 전국등반경기대회' 여자일반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